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경제 분석

An Analysis of Farm Household Economy by Family Life Cycle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가정학과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가정학과

최 현 자

교 수 : 최 은 숙

*Dept. of Agricultural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Hyun Cha Choe*

*Dept. of Agricultural Home Economics
College of Agricul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Eun Sook Choi*

— 목 차 —

I. 서 론	1) 농가의 생활주기
1) 문제의 제기	2)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경제 분석
2) 연구의 목적	(1) 소 득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2) 소비지출
1) 가정생활주기 연구의 의의	(3) 저 축
2)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변동에 관한 선행연구	(4) 자 산
III. 연구방법	(5) 부 채
1) 자 료	3) 농가의 소득, 소비, 저축, 자산 및 부채함수의 추정
2) 분석방법	V. 결론 및 제언
3) 연구의 제한점	참 고 문 헌
IV. 결과 및 고찰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family life cycle of farm and to analyze changes of economic conditions—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s, savings, assets, and debts—in farm household according to the family life cycle.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s, savings, assets, and debts functions are also estimated by age of household head.

The data of Farm Household Economy Survey which was conducted in 1983 by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is used in this study. Among total data of 2000, 1603 are analyzed for mean, percentage, and regression using CRISP Program

at Office of Rural Development.

The results of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1) Eight stages of family life cycle of farm ar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growth of the first child. They are: Establishment stage, Child bearing and preschool stage, Elementary school stage, Middle and high school stage, College and vocational adjustment stage, Period of children's marriage, Re-adjustment stage, and Disorganizing stage.

2) The economic conditions of farm household are significantly fluctuated by family life cycle. Among the eight stages, stage II is considered relatively comfortable living period and stage III, IV are the most difficult periods of farm household economy.

3) The estimated functions of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s, savings, assets, and debts by age of household head are as follows :

$$Y (\text{income}) = 2,354,832 + 98,465T - 1,036T^2 (F = 11.746)$$

$$C (\text{consumption expenditures}) = 81,876 + 154,976T - 1,552T^2 (F = 37.272)$$

$$S (\text{savings}) = 2,272,956 + 56,511T + 516T^2 (F = 4.262)$$

$$D (\text{debts}) = 903,929 + 28,300T - 438T^2 (F = 3.339)$$

$$A (\text{assets}) = 200,816 + 1,213,336T - 12,930T^2 (F = 21.069)$$

To carry on a reasonable farm household management, a suitable measure to cope with the desire of family and the economic conditions of farm household should be prepared.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

가정경제는 일반적으로 소득, 소비, 그리고 저축이라는 측면에서 생각되고 있지만 전생애라는 장기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자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즉 소득은 연령이나 그때마다의 상황에 의해 변동하므로 불안정하지만 자산의 축적은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가계의 안정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江見康一, 伊藤秋子 1982;105). 가정은 일상의 소득 중에서 현재 생활에 필요한 소비를 하고 나머지를 장래의 생활을 위해 저축하며 이 저축이 자산을 형성하게 되므로 저축의 증가가 곧 자산의 증대로 이어지며 또한 자산은 저축의 증대에 좌우될 뿐 아니라 債의 자산인 부채가 소득의 감소를 낳기도 한다.

가족의 형태와 한 가족이 시간경과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생활상의 변화, 즉 가족의 시간적 흐름인 가정생활주기는 각 단계마다 상이하게 경험하는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김영모 1965; 43).

따라서 가계의 장기생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전 생애를 통한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소비, 저축, 자산, 부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정생활주기의 발달단계에 따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정경제를 분석한 연구는 도시가계에 관한 것이 몇 편있을 뿐 농가경제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농가의 가정생활주기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농가의 경제상황을 분석하여 장기 가계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점에서 매우 절실히 요청되는 연구과제라 사료된다.

나.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첫째, 농가의 특성에 부합되는 농가 생활주기를 설정하고 둘째, 그 주기에 따라 농가의 소득, 소비, 저축, 자산 및 부채의 변동상을 분석하며 셋째, 농가의 가구주연령을 독립변수로 하여 소득, 소비, 저축, 자산 및 부채함수를 추정하므로써 농가의 장기생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한 가정은 두사람의 결혼으로 성립되어 자녀를 가지면서 서서히 확대되었다가 자녀가 성장하고 독립하면서부터 다시 축소되기 시작하여 마지막 자녀의 독립과 더불어 다시 부부 두사람의 가정이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정은 이와같은 지연적인 생활주기를 갖고 있어 전체주기를 통해 주어진 시기에 요구되는 활동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가족구성이나 생활내용에서 항상 규칙적인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전형적인 가족이 생애의 일정기간을 보내는 동안 거치게 되는 특정한 단계의 연속을 가정생활주기(Family Life Cycle) 라고 한다 (Oppenheim 1976; 19, Glick 1977; 5).

가정생활주기는 가족집단이 처해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과 가족구성원의 의식구조 그리고 사회변동기간 등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데(김영모 1965; 43) 생활주기 각 단계 구분의 지침으로는 결혼지속기간, 결혼상태, 자녀의 유무와 연령, 가상의 연령, 초아의 출산과 같은 가정의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한 시기등 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이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요소들이 사용되어왔다 (Deacon, Firebaugh 1981:168).

같은 시기, 같은 지역, 같은 사회에 있는 사람은 비슷한 형의 가족주기단계를 형성하게 된다 (김주수, 이희배 1983; 72).

1) 가정생활주기 연구의 의의 :

가정생활주기는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가치, 목표, 책임, 자원, 역할, 문제 등을 나타내고 있으며(Fitzsimmons, Williams 1974; 181) 각 단계의 발전에 따라서 동일한 물가상황이라도 각 단계별로 서로 다른 수취양상을 보여주므로써 소득 및 소비지출구조가 여러가지로 변모하게 된다.

우리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생활주기의 위치를 앞으로써 소득수준, 소비자행동, 주부의 취업여부, 부부의 결혼만족도, 가족의 갈등등 가정생활의 주요한 요인들을 예측할 수 있으며(Duvall 1977; 157) 또한 가족구성과 경제적 특성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분석하는 분석틀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Glick, Parke 1965; 187). 즉 가정생활주기 접근방법은 가족주기의 여러 측면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분석틀로서 다른 변수들에 대해 가족행동의 여러가지 측면을 전망하는데 우위에 있음이 많은 선행연구에서 입증되었다.

2)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변동에 관한 선행연구 :

가정생활주기에 관한 연구는 먼저 농촌가족의 생활주기를 측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소련의 경제학자 AV Tchajanow와 그 동료들에 의해 최초로 농촌가족의 생활주기 연구가 있었으며 그 후 Family Life Cycle이라는 개념을 정식화한 것은 1930년대 미국의 농촌사회학자들로 PA Sorokin, CJ Galpin, CC Zimmerman, CP Loomis, CE Lively, EL Kirkpatrick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小林茂 1961; 5).

최초로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가계변동을 분석한 연구자는 19C말 이태리의 BS Rowntree로서 York시의 노동자 생활상태를 조사해 노동자의 일생중에는 곤궁한 경우와 비교적 여유있는 시기가 서로 번갈아가는 것이 명확하여 그 원인을 추적하게 되었는데(江見康一, 伊藤秋子 1982; 101 ~ 2) 그는 일차적 빈곤선을 그어 5~15세, 30~40세, 그리고 65세이상 등 3단계에서 빈곤선 이

하의 어려운 시기를 맞는다고 하였다 (坂本武人 1984; 5~6).

농가의 가계를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Tchajanow와 Sorokin등이 농촌가족의 크기와 구성에 따라 가계변동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가정형성후 14년경에 소비력계수(V)와 노동력계수(A)의 비(V/A)가 최고치에 도달하여 가장 곤궁한 시기이며(Tchajanow) 자녀가 어려서 일을 할수 없는 couple with one or more children stage가 가장 어려운 시기이고 family with one or more adult self supporting children stage는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때라고 하였다(Sorokin). 또한 Blackwell 은 농촌가족의 재산축적과 현금수입은 첫 자녀가 10~15세인 제2단계의 후기와 3단계의 전기에 가장 곤궁하며 첫 자녀 출생후 36년 이상 경과된 동거 자녀가 없는 4단계도 불안정한 시기라는 것을 지적하였다(서병숙, 임혜경 1984; 39에서 재인용). Loomis와 Beegle(1948)은 농촌가족의 주기를 4단계로 구분하고 자녀의 출생으로 가족수가 팽창하면서도 그들의 노동력을 기대할 수 없는 제2단계(자녀연령 14세까지)와 성인이 되어 가정을 떠난 후 노부부만 남아 있는 제4단계가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시기라고 하였다. 일본농가의 경우 小林茂(1961)는 가족주기의 발전에 따라 가족노동력수와 소비가족원수의 주기적 변화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즉 소비가족원수는 최대가 되나 소득경제능력이 최저에 달하는 결혼 후 11년에서 19년까지가 가장 어려운, 농가의 경제위기 시기이며 소득경제력이 최대인 시기는 후계자가 결혼하고 막내자녀가 약 15세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발표하였다. 일본농가의 생활주기 단계별 가계비의 실태를 파악한 渡邊桂子(1981)의 연구에서는 부양지수(부양가족수/활동가족수)가 높은 의무교육기와 고교·대학교육기에서 경제부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小林茂와 비슷한 시기에 최재석(1964)은 우리나라 농촌가족의 생활주기를 측정하였는데 결혼지속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녀수가 증가하여

결혼 21~25년에 가족성원이 자녀 4.66명으로 최대가 되며 가족성원의 연령에 따라 이들의 생산력과 소비력을 달리하기 때문에 생산력은 최저가 되나 소비력은 최저에 달하지 않는 결혼지속기간 11~15년에 가족의 종합경제력(가족성원의 생산력합계/소비력합계×1000)이 최저에 달하며 1~5년에 최고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동·서양의 농가의 가계상황은 결혼 후 11~19년 즉 자녀가 아직 어려서 일을 할수 없는 시기에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는다고 할 수 있겠다.

소비자재정과 생활주기에 관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로서 Lansing과 Morgan(1955)은 생활주기를 7단계로 나누어 그에 따른 소득, 소득의 주요사용, 자산과 부채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소득은 막내자녀가 6세이상인 부부의 단계에서 가장 높았고 순자산은 저축의 결과로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여 제6단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후 마지막 단계에선 급격히 감소하였다.

11개의 지출항목에 대해 사회경제적 변수 및 가정생활주기가 미치는 영향을 Wisconsin주 가계를 통해 분석한 최은숙의 연구(1983)에서는 부부가 25~48세이고 자녀가 0~5세인 2단계에서 피복비와 자동차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크며 자녀가 6~11세인 3단계에서는 가구, 가계설비, 교육비지출이 가장 큰 단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홍영표(1969)는 세대주연령 50~55세인 제8 단계를 정점으로 소득과 소비지출이 감소하여 55세에 수지균형점을 형성, 다시 적자가계를 운영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또 다른 연구(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80)에서는 새로운 가구가 형성되고 자녀출산으로 가구 규모가 늘어날 뿐 아니라 가계의 물질적 생활 특히 주거의 기초가 다져지는 가구형성 및 생활기반정착기(청년기 25~39세)에서 경제적으로 가계생활이 가장 여유없는 시기이며 정신적으로도 가장 긴장된 단계로 나타났다. 또한 서병숙등은(1984) 첫 자녀의 교육이 끝나고 기혼자녀가 있는 단계에서 총수입이 가장 많고 첫 자녀가 대학

에 나서는 제5단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늘며 자녀출산전과 첫 자녀의 국민학교 교육기, 그리고 교육은 끝났으나 아직 기혼자녀가 없는 시기에 자산 축적의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하였다.

저축의 경우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저축율, 저축목적, 그리고 저축목적에 따른 저축종류등에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조희금 1984;65).

위의 연구들에서 본 바와같이 가계는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자녀의 성장, 가족구성의 변화등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게 된다. 각 가정이 처해 있는 생활주기상의 위치를 이해하므로써 앞으로 발생할 사건을 예측하고 보다 합리적인 생활설계를 수립하는데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자 료 :

본 연구는 농가의 생활주기 설정과 그에 따른 농가경제분석을 위해 1981년 인구동태표본조사보고서와 1974년 출산력 조사 그리고 1983년 농가경제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농가경제조사는 우리나라의 농가경제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953년부터 농수산부가 조사해 왔는데 본 조사의 표본은 1980년 농업센서스 결과를 기초로 1982년에 새로이 설계한 것으로써 전국 200개 조사지구에서 각 조사지구당 10호의 농가를 추출하여 200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한 것이다. 그중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소득과 지출의 극단치, 분가지출이 있는 농가의 자료 및 불일치하는 자료를 제외한 1603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2) 분석방법 :

가정생활주기 단계별 농가 가구당 소득, 소비, 자산, 저축, 부채의 평균과 백분율을 구하였고 소비성향, 저축성향 및 소득탄력성을 직선회귀분석을 통해 계산하였다. 그리고 가구주연령을 독립변수로 하는 소득, 소비, 저축, 자산 및 부채함

수의 주성을 위해서는 2차곡선인 정규회귀방정식을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농촌진흥청 전산실의 CRISP(Crop Research Integrated Statistical Package)Program을 이용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

본 연구에서 사용한 농수산부의 농가경제조사 자료에는 농가의 생활주기 설정에 요구되는 가족관계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성, 자녀수와 연령 및 가족형태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생활주기의 단계를 나타내는 가구주연령을 산정하여 가정생활주기를 설정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는 가족형태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자산의 구성과 저축행태에 대한 분석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Ⅳ. 결과 및 고찰

1) 농가의 생활주기 :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본질적으로 직계가족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나 통계적으로는 핵가족이 도시 74.9%, 농촌 67.4%로 전 가족의 2/3를 핵가족이 차지하고 있다(최재석 1980;4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촌가족을 핵가족¹⁾이라는 가정하에 농가의 생활주기를 WHO의 핵가족주기 기본모형을 바탕으로 하여 자녀의 성장에 따라 완전확장기를 세분하여 8단계로 생활주기를 나누었다. 또한 생활주기 제단계 설정의 근거가 되는 남편의 초혼연령, 평균자녀수, 자녀출산간격, 초아와 최중아의 초혼연령, 부부의 사망연령등을 기존자료에 의거 추정하여 각 단계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가구주 연령을 산정하였다. 각 생활주기 단계의 지속연한과 가구주연령을 단계의 특징과 함께 다음 표 1로 나타내었다.

2)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경제분석 :

농가의 생활주기 단계별 경제분석결과는 다음

註 1) 여기서 핵가족이라 함은 농촌가족의 본질이 핵가족이라는 것이 아니고 통계적으로는 핵가족 형태를 띠고 있는 가족이 지배적이므로 농가의 가족형태를 핵가족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표 1. 농가의 가정생활주기 단계

단계	구분	단계의 정의	가구주의 연령	지속기간
I	가정형성기	혼인~초아의 출산	25.8세~27.9세 (~ 27)	2.1년
II	자녀출산기	초아의 출산~최종아의 출산	27.9세~32.2세 (28 ~ 33)	4.3년
III	자녀의 초등교육기	초아의 학령전기 및 초등교육기	32.2세~39.9세 (34 ~ 40)	7.7년
IV	자녀의 중·고등교육기	초아의 중·고등교육기	39.9세~45.9세 (41 ~ 46)	6.0년
V	자녀의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	초아의 대학교육기 혹은 직업획득기~ 초아의 결혼	45.9세~51.9세 (47 ~ 52)	6.0년
VI	자녀독립기	초아의 결혼~최종아의 결혼	51.9세~61.3세 (53 ~ 61)	9.4년
VII	재적응기	최종아의 결혼~부부중 1명의 사망	61.3세~70.0세 (62 ~ 70)	8.7년
VIII	가정해체기	부부중 1명의 사망~나머지 부부의 사망	70.0세~75.0세 (71 ~ 75)	5.0년

표 2에 제시하였다. 각 단계별 가구원수는 자녀의 초·중·고등교육기인 제 III, IV단계가 5.7명으로 가장 많고 전체 농가의 가구원수는 평균 5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구당 취업자수는 가정해체기에서 가장 많은 2.9명으로 취업가족비율이 73%에 달하는데 이는 VIII단계가 I단계와 중복된 형태인 직계가족의 형태로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녀의 초·중·고등교육기에 취업가족비율은 가장 낮아 각각 42%, 44%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의 출산으로 가구원수는 최대에 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할 수 있다.

(1) 소득:

농가의 소득은 농업활동에서 얻어지는 농업소득과 농외활동에서 얻어지는 농외소득으로 구성

된다(강봉순, 문팔용 1975;3).

농가의 생활주기별 소득구조를 표2를 통해 고찰해 보면 농가소득의 경우 가구주연령 47~52세인 제 V단계에서 5,000,430 원으로 가장 많으며 자녀의 초등교육기를 제외하면 I단계부터 차츰 증가하여 V단계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최저에 이르게 된다. 농가소득중 농업소득은 소단계에 걸쳐 가구주연령 41~46세인 자녀의 중·고등교육기를 최고점으로 하는 2차곡선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농외소득은 농업소득과는 상반되는 경향으로 농업소득이 가장 많은 자녀의 중·고등교육기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는 가계를 보조해 주는 미혼동거 형제, 자매들의 결혼으로 인해 취업가족비율이 소단계중 가장 낮아졌으며 또한 자녀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해 생산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단계로 비교적 취업가족

표 2. 농가의 생활주기단계별 농가경제분석

생활주기단계	단위 : 년평균 : 원, () 안은 구성비								
	I	II	III	IV	V	VI	VII	VIII	전체평균
조사 가구 수	66	97	240	326	351	338	151	34	1,603
가구원 수	4.0	5.3	5.7	5.7	5.1	4.1	4.1	4.0	5.0
가구당취업자수	2.6	2.7	2.4	2.5	2.6	2.6	2.8	2.9	2.6
부양가족비	1.5	2.0	2.4	2.3	2.0	1.6	1.5	1.4	1.9
농가소득	4,476,405 (100.0)	4,630,921 (100.0)	4,396,419 (100.0)	4,857,299 (100.0)	5,000,430 (100.0)	4,680,969 (100.0)	4,457,777 (100.0)	4,240,415 (100.0)	4,693,944 (100.0)
(농업소득)	(55.8)	(63.7)	(65.0)	(69.0)	(63.1)	(60.0)	(58.0)	(57.6)	(63.3)
(농외소득)	(44.2)	(36.3)	(35.0)	(31.0)	(36.9)	(40.0)	(42.0)	(42.4)	(36.7)
가치분소득(A)	4,370,996 (97.6)	4,506,916 (97.3)	4,284,982 (97.5)	4,734,354 (97.5)	4,881,016 (97.6)	4,519,703 (96.6)	4,277,474 (96.0)	4,132,891 (97.5)	4,569,410 (97.3)
가계비지출(B)	3,457,178	3,393,766	3,372,552	3,918,873	4,029,642	3,994,906	3,442,339	2,777,655	3,757,486
평균소비성향(B/A)	0.791	0.753	0.787	0.828	0.826	0.884	0.805	0.672	0.822
저축(C)	913,318	1,113,150	912,430	815,482	851,374	524,797	835,136	1,355,236	811,924
평균저축성향(C/A)	0.209	0.247	0.213	0.172	0.174	0.116	0.195	0.328	0.178
자산	21,853,378	25,945,587	25,878,839	30,316,003	29,199,227	25,926,781	24,197,741	21,002,628	27,094,892
부채	1,345,152	1,305,770	1,307,729	1,419,605	1,145,120	1,138,208	845,141	635,712	1,202,725

비율이 낮은 초·중·고등교육기에서 농외소득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가처분소득²⁾은 가구주연령 41~52세인 자녀의 중·고등교육기와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에서 가장 높아 농가의 가처분소득은 가구주연령 40대에서 정점을 이루고 있다. 이는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도시근로자가계 연구에서 나타난 소득경향과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농가 전체의 평균소득에 대한 각 생활주기별 소득변동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즉 가구주연령 41~52세인 제Ⅳ, Ⅴ단계를 제외하고는 농가소득과 농업소득이 전체 주기의 평균수준 이하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농업소득의 경우 I과 Ⅷ단계는 각각 전체 농가 농업소득의 84.2%, 82.3%로 현저히 낮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농외소득은 위의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가정형성기에서 전체농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114.6%이며 자녀의 초·중·고등교육기에서 평균이하의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이상으로 볼 때 Ⅲ단계에 있어 자녀의 초등교육기인 제Ⅲ단계와 자녀가 결혼하고 부부만이 남는 제Ⅷ단계에서 불리한 소득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Loomis등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2) 소비지출 :

소비지출³⁾은 실지출 중에서 음식물비, 피복비,

주거비, 광열비, 잡비등 가족의 생계를 위해 구입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가계비라고도 한다. 표 2의 가계비지출 항을 살펴보면 농가의 평균 가계비지출액은 3,757,486원으로 가처분소득의 82.2%를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있다. 가처분소득중 소비지출의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이 가장 큰 단계는 Ⅵ단계로 0.884이고 제Ⅷ단계에서 가장 작아 0.672를 나타내었다. 각 단계별 가계비지출추이를 보면 가처분소득의 증가와 자녀의 성장, 출가등에 따라 가계비가 Ⅴ단계까지는 계속 증가하다가 그 이후 자녀의 독립으로 인해 가족수가 줄어들므로써 가계비는 점차 감소하여 마지막 단계에서 최저에 이른다. 예외적으로 제Ⅰ단계는 다소 높은 소비지출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송금이나 결혼자금보조등을 위한 지출이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다음 표 4는 가정생활주기 단계별 가구당 각 소비지출항목의 한계소비성향과 소득탄력성을 나타낸 것이다. 농가의 한계소비성향은 0.519로 소득이 1,000원 증가함에 따라 소비는 519원이 증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계소비성향이 가장 큰 단계는 자녀의 독립기로 0.632이며 가정해체기는 0.333으로 가장 작았다. 또한 소득탄력성도 Ⅲ단계중 자녀독립기에 0.715로 가장 높고 가정해체기에 0.496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주기에 걸쳐 농가의 소득

표 3. 농가의 평균소득 대비 생활주기단계별 소득변동

(단위: %)

가정생활주기단계	전체평균	I	II	III	IV	V	VI	VII	VIII
농가소득	100.0	95.4	98.7	93.7	103.5	106.5	99.7	95.0	90.3
농업소득	100.0	84.2	99.3	96.2	112.9	106.3	94.5	87.0	82.3
농외소득	100.0	114.6	97.5	89.2	87.2	107.0	108.6	108.6	104.2
가처분소득	100.0	95.7	98.6	93.8	103.6	106.8	98.9	93.6	90.4

註2) 농가소득중 조세공과 부담금과 차입금 이자등을 공제하고 남은, 즉 가계가 생활비나 저축등으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금액(농가경제 조사결과 보고서, 1983: 24).

註3) 가족들의 현재의 욕망을 직접 충족시켜 주는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의미한다(박혜경, 1984: 184).

표 4. 농가의 생활주기단계별 한계소비성향 및 소득탄력성

가정생활주기		I	II	III	IV	V	VI	VII	VIII	전체평균
가 계 비 지 출	a	0.571	0.618	0.694	0.575	0.610	0.715	0.645	0.496	0.613
	b	0.452	0.465	0.546	0.476	0.504	0.632	0.519	0.333	0.519
음 식 물 비	a	0.259	0.322	0.302	0.293	0.345	0.429	0.434	0.513	0.360
	b	0.062	0.089	0.092	0.082	0.090	0.106	0.109	0.120	0.096
주 거 비	a	0.431	0.700	0.622	0.650	0.579	0.934	0.787	1.281	0.694
	b	0.025	0.042	0.046	0.039	0.033	0.057	0.048	0.073	0.043
광 열 · 수 도 비	a	0.343	0.231	0.375	0.184	0.324	0.314	0.351	0.342	0.306
	b	0.012	0.009	0.015	0.007	0.011	0.011	0.013	0.013	0.011
피 복 비	a	0.818	0.559	0.578	0.395	0.561	0.917	0.697	0.625	0.615
	b	0.009	0.019	0.026	0.017	0.023	0.033	0.023	0.020	0.024
교육 · 교양오락비	a	1.149	0.917	0.841	0.843	0.727	0.664	1.111	0.192	0.851
	b	0.054	0.022	0.037	0.118	0.093	0.079	0.080	0.010	0.086
(교 육 비)	a	1.306	1.538	0.967	0.874	0.750	0.676	1.113	0.044	0.888
	b	0.047	0.020	0.029	0.111	0.087	0.073	0.069	0.002	0.079
가 계 잡 비	a	0.772	0.709	0.849	0.798	0.826	0.891	0.703	0.373	0.817
	b	0.291	0.227	0.237	0.213	0.252	0.345	0.247	0.097	0.259

a=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비지출비목별 소득탄력성(=한계소비성향 / 평균소비성향)
b=한계소비성향

탄력성은 1 미만으로 소비의 소득반응도가 비탄력적이며 이는 농가의 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의 증가가 뒤따르지 못함을 의미하며 저축의 가능성이 크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다른 단계에 비해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단계인 자녀독립기에서 소득의 변화에 소비지출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표 4와 표 5를 통해 농가의 소비지출 내용을 좀더 자세히 지출비목별로 살펴보자.

① 음식물비:

가계비중 음식물비의 비중은 Ⅲ단계 평균 32.4%로 비교적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물비 지출액은 청소년기의 자녀를 가진 IV단계에서 가장 많으며 Ⅴ단계에 걸쳐 큰 변화없이 자녀의 중·고등교육기를 정점으로 증감하였다. 그러나 구성비는 초·중·고등교육기가 38.8%로 가장 높으며 자녀출산기, 초·중·고등교육기, 가정해체기에서 전체농가 평균 이상의 음식물비 구성비를 나타냈다. 이는 주로 가족수의 증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음식물비의 소득탄력성은 다른 비목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출비목의 선택에서 필수적인 성격을 띄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계별로 볼 때 가정형성기에서 0.259로 가장 낮고 가정해체기에서 0.513으로 가장 높았으며

순단계중 가정형성기 및 자녀교육기에 음식물비의 필요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주거비:

주거비는 방세, 땅세, 설비비, 수선비, 가구집기, 주택유지비 등에 쓰이는 비용을 포함한다. 농가전체의 주거비지출은 281,451 원이며 초등교육기에서 318,883 원으로 가장 많고 가계비에 대한 구성비도 다른 단계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도시 가계의 경우도 I, II단계(가구주연령 20~39세)에서 주거비의 비율이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I단계에서는 결혼후 새 가정을 형성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집마련과 가구를 비롯한 가계용품의 구입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II단계에서는 자녀출산으로 인하여 늘어나는 가사노동을 간소화하기 위한 능률적이고 과학적인 시설과 설비의 마련 때문이라 하였다(박해경 1984;268). 주거비의 소득탄력성은 농가전

체 0.694로써 소득 10% 변화에 대해 주거비지출은 6.9% 증가함을 의미하며 가정형성기의 탄력치가 순단계중 가장 작은 0.431로써 이시기에는 타비목에 비해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다른 비목에 비해 비교적 높은 탄력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농가에 있어 주거비에 대한 지출이 아직은 사치적인 비목으로 간파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광열·수도비:

광열·수도비는 음식물비처럼 가족수에 비례하여 지출액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 일정한 사용량이 있기 때문에 순단계에 걸쳐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이지 않으며 총가계비중 약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I, V단계에서 비교적 다른 단계보다 높은 구성비를 보이는데 이는 다른 단계에 비해 총지출이 적은 반

표 5. 농가의 생활주기단계별 소비지출 분석결과

단위: 원, (%)

생활주기단계	I	II	III	IV	V	VI	VII	VIII	전체평균
가 계 비 지 출	3,457,178 (100.0)	3,393,766 (100.0)	3,372,552 (100.1)	3,918,873 (100.0)	4,029,642 (100.0)	3,994,906 (100.0)	3,442,339 (100.0)	2,777,655 (100.0)	3,757,486 (100.0)
음 식 물 비	1,046,185 (30.3)	1,242,653 (36.6)	1,305,136 (38.7)	1,324,849 (33.8)	1,272,421 (31.5)	1,116,113 (28.0)	1,074,934 (31.2)	965,408 (34.8)	1,218,792 (32.4)
주 거 비	254,980 (7.4)	272,581 (8.0)	318,883 (9.5)	286,140 (7.3)	280,411 (7.0)	273,640 (6.8)	259,710 (7.5)	233,914 (8.4)	281,451 (7.5)
광 열 · 수 도 비	153,625 (4.4)	175,885 (5.2)	172,582 (5.1)	177,666 (4.5)	164,218 (4.1)	156,808 (3.9)	157,368 (4.6)	159,007 (5.7)	166,157 (4.4)
피 복 비	148,124 (4.3)	153,959 (4.6)	192,907 (5.7)	204,592 (5.2)	198,589 (4.9)	163,402 (4.1)	140,505 (4.1)	130,311 (4.7)	179,842 (4.8)
교육 · 교양오락비	204,446 (5.9)	108,414 (3.2)	187,487 (5.6)	663,626 (16.9)	624,947 (15.5)	536,317 (13.4)	309,840 (9.0)	216,308 (7.8)	461,700 (12.3)
(교 육 비)	156,537 (4.5)	58,937 (1.7)	128,169 (3.8)	600,961 (15.3)	568,301 (14.1)	490,167 (12.3)	265,303 (7.7)	183,992 (6.6)	408,103 (10.9)
가 계 잡 비	1,649,819 (47.7)	1,440,274 (42.4)	1,195,558 (35.4)	1,262,000 (32.3)	1,489,056 (37.0)	1,748,626 (43.8)	1,499,982 (43.6)	1,072,708 (38.6)	1,449,535 (38.6)

년 광업·수도비지출은 거의 일정하므로 약간 높은 구성비를 보이는 것이다. 소득탄력성은 5단계에서 음식물비 다음으로 낮게 나타나 가계비목중 긴급요도가 높은 기본생계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④ 피복비 :

도시가계는 가구주연령 20~29세인 제 I단계에서 가장 높은 피복비지출 구성비를 나타냈으나 (박혜경 1984; 272~3) 농가의 피복비지출은 자녀가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시기와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대학에 다니거나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 III, IV, V단계에서 지출액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학교입학이나 졸업 그리고 교복을 비롯한 통학복과 직장생활에 따른 의류, 장신구류, 신발류등의 수요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복비지출의 소득탄력성을 통해서도 자녀의 중·고등학교교육기에 피복비의 긴급요도가 높음이 입증되었다.

⑤ 교육·교양오락비 :

농가의 경우 고등교육을 대부분 도시에서 받게되기 때문에 자녀교육비에 하숙비·기숙사비, 교통비등의 비용이 첨가되므로 도시근로자가구보다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교양 오락비는 생활주기단계별로 가장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는 소비지출항목으로써 생활주기의 초기(가구주연령 40세까지)에는 총가계비의 3~5%를 차지하던 것이 IV, V, VI 단계에서는 14~17%로 매우 큰 변화를 보인다.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형성기에서 자녀출산이나 초등교육기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은 아직 교육을 마치지 않은 가구주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교육비보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는 본 분석의 생활주기가 직계가족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교육·교양오락비중 교육비의 탄력치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비에 대한 소비지출이 소득이 증가하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⑥ 가계잡비 :

비용·위생비, 보건·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관혼상제, 교제 및 증여, 연초비 등으로 구성된 가계잡비는 가계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구성비를 보면 I, V, VI, VII단계에서 높게 나타나는데 I단계는 보건·의료비의 증가로 인해 총가계비의 48%를 잡비로 지출하며 V, VI, VII단계는 자녀의 결혼등에 대한 지출의 증가로 잡비지출이 많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보건·의료비는 초아출산과 노령에 의한 질병으로 가정형성과 해체기에서 지출비중이 크게 나타나며 교통비는 자녀가 통학하게 되는 IV, V단계에서 크게 나타났다. 그 외의 잡비지출항목은 농가의 가계비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잡비의 소득에 대한 소비탄력성을 보면 그 값이 크게 나타남으로써 소득 증감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비목이라고 할 수 있다.

(3) 저 축 :

저축은 현재소비의 억제와 동시에 장래의 잠재적 소비로서 결국 소비와 저축의 선택은 현재의 소비와 장래의 소비에 대한 소득의 분배를 말하는 것이다(박혜경 1981; 223). 가계의 저축은 실업이나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대비 또는 가정생활주기의 각 단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에 대비하는 예비적 동기의 저축이 큰 부분을 이루고 있으며(조희금 1984; 58) 여기에는 가계의 소득, 자산, 부채 및 금리, Inflation 등이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조대경, 박재운 1977; 18-24).

농가의 가계저축을 각 생활주기 단계별로 표 2와 표 6에서 살펴보자. 우리나라 농가는 평균연간 811,924 원을 저축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의 17.8%를 저축하고 있으며 각 단계별로 보면 가정해체기에서 연간 1,355,236 원을 저축하여 가장 많은 저축을 하는 단계로 나타났다. 1973년 도시근로자가구의 저축형태를 가구주 연령계층별로 분석한 연구(김광석 1975; 86)에서는 농가에 대해 분석한 본 연구결과와는 달리 가구주연령 25~34

표 6. 농가의 생활주기단계별 한계저축성향 및 소득탄력성

가정생활주기단계		I	II	III	IV	V	VI	VII	VIII	전체 평균
가계비지출	a'	2.622	2.082	2.131	3.047	2.851	3.172	2.467	2.034	2.702
	b'	0.548	0.535	0.454	0.454	0.496	0.368	0.481	0.667	0.481

a' = 가처분소득에 대한 농가저축의 소득탄력성 (= 한계저축성향 / 평균저축성향)
 b' = 한계저축성향

세에 가장 높은 저축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농가의 가구주연령 71세이상의 VIII 단계를 제외시킨다면, 도시근로자가구의 저축행태와 비슷하게 20대 후반과 30대에서 높은 저축율을 보인다. 전반적으로 가정생활주기의 I, II, III 단계에서의 평균저축성향이 그 이후의 단계(VIII 단계 제외)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유형은 Fisher(195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Life cycle 가설에 의하면 가구주의 연령계층이 높아감에 따라 가계의 한계소비성향이 증가할 것이라고 하였다(김광석 1975; 86). 즉 한계저축성향은 가구주연령의 상승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저축의 개념 즉 가계저축을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공제한 가계잉여의 개념으로 정의한 본 논문에서는 Life cycle 가설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4) 자 산 :

소득과 소비지출의 흐름이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다르면 자산의 종류와 크기 역시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변화하게 되므로 가구주의 연령에 근거한 가정생활주기에서는 단계의 진전에 따라 자산이 변화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자산을 분석하였다.

농가의 자산은 토지, 건물, 대동식물, 대농기구 등의 고정자산, 미판매현물, 미처분농업생산자재, 소동물 등의 유동자산과 현금, 준현금의 유동자산으로 분류된다. 표 2의 자산항목을 통해 농가의 자산구조를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고찰해 보면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전체 평균 자산액은 27,094,982 원으로 IV 단계와 V 단계만이(가구주연령 41 ~ 52 세) 전체 평균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정해체기에서 소유자산이 21,002,628 원

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장래의 생활을 위해 남겨진 저축이 stock으로써의 자산을 형성하게 되므로 I, II, III 단계에서 저축이 증가함에 따라 IV 와 V 단계에서는 높은 자산의 축적을 보이며 그 이후의 단계는 축적된 자산을 처분하여 통상의 소득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녀의 결혼과 노후의 생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자산이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Lansing과 Morgan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5) 부 채 :

농가의 부채는 자녀출산기 이후 증가하여 IV 단계 즉 자녀의 중·고등교육기에 절정을 이루고 그 이후 감소하고 있다. 자산에서의 가계차입금(부채)의 비중을 보면 전농가에서 4.4%를 차지하고 주기별로는 가정형성기에서 6.1%로 가장 높고 자녀독립기를 제외하면 점차 감소하여 가정해체기에서 3.0%로 최저에 이른다. 도시근로자가구의 경우 1971년 가계차입금(부채)의 비중은 총자산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농가의 소득, 소비, 저축, 자산 및 부채함수의 추정 :

이상에서는 농가의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각 단계에서의 가구주연령을 계산하여 농가경제를 분석하여 보았으며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농가의 일생동안 가계수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구주연령을 독립변수로 하고 농가의 가처분소득, 소비, 저축, 자산 및 부채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2차곡선적인 정규회귀방정식을 가정하고 함수를 추정하였다. 즉, $X = a + b_1 T + b_2 T^2$ 의 분석모형을 가정하였는데 여기서 X는 Y(가처분소득), C(소비), S(저축), A(자산), D(부채)를 나타내

표 7. 가구주연령에 따른 농가의 소비지출함수 추정결과

분 석 막 형	$C_i = a_i + b_{i1} T + b_{i2} T^2$ *			
	a_i	b_{i1}	b_{i2}	F
음 식 물 비	581,087	33,698	-404	45.621
광 열 · 수 도 비	131,276	1,983	-25	3.493
교 육 비	-1,974,902	97,180	-941	121.864
교 육 · 교 양 오 락 비	-1,961,921	99,367	-967	124.276
주 거 비	238,280	2,965	-41	0.887
피 복 · 신 발 비	-28,414	10,038	-113	36.901
미 용 · 위 생 비	37,041	292	-6	2.128
보 건 · 의 료 비	352,758	-6,045	56	1.799
교 통 비	-72,145	8,285	-79	24.051
통 신 비	840	1,006	-9	1.740
기 타 잡 비	803,072	3,337	-38	0.055
가 계 잡 비	1,121,567	6,925	-2	0.088

* C_i = 비목별 지출액
 T = 가구주연령

며 T 는 가구주의 연령을 나타낸다. 이 분석모형의 추정결과는 다음 식(1) ~ 식(5)와 같다.

$$\text{소득함수 } Y = 2,354,832 + 98,465T - 1,036T^2$$

$$(F = 11.746) \dots (1)$$

$$\text{소비함수 } C = 81,876 + 154,976T - 1.552T^2$$

$$(F = 37.272) \dots (2)$$

$$\text{저축함수 } S = 2,272,956 + 56,511T + 516T^2$$

$$(F = 4.262) \dots (3)$$

$$\text{부채함수 } D = 903,929 + 28,300T - 438T^2$$

$$(F = 3.339) \dots (4)$$

$$\text{자산함수 } A = 200,816 + 1,213,336T - 12,930T^2$$

$$(F = 21.059) \dots (5)$$

농가의 가처분소득은 가구주연령 47.5세에서, 소비지출은 49.9세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은 46.9세에서 그 보유액이 가장 많고 32.3세에 부채는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저축은 가구주연령 54.7세를 최고점으로 하는 위로 오목한 2차곡선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에서 보면 전 연령계층에서 후자가

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세대주연령 50~55세를 정점으로 소득 및 소비지출이 감소하여 55세에 수지균형점을 형성 다시 적자가계를 운영하게 된다는 홍의 도시근로자가구 가계수지 분석결과와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가구주연령에 대한 농가의 소비지출비목별 소비함수를 표 7에서 볼 수 있다. 이 표에 의하면 지출비목중 음식물비, 광열·수도비, 교육비 및 교양오락비, 피복·신발비, 교통비 등이 가구주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음식물비는 가구주연령 41.7세에 교육·교양오락비는 51.4세에서 그 소비지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의 성상을 구분인자로 하여 8단계의 농가생활주기를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의 가구주연령을 산정하여 이를 독립변수로 농가경제를 분석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가계분석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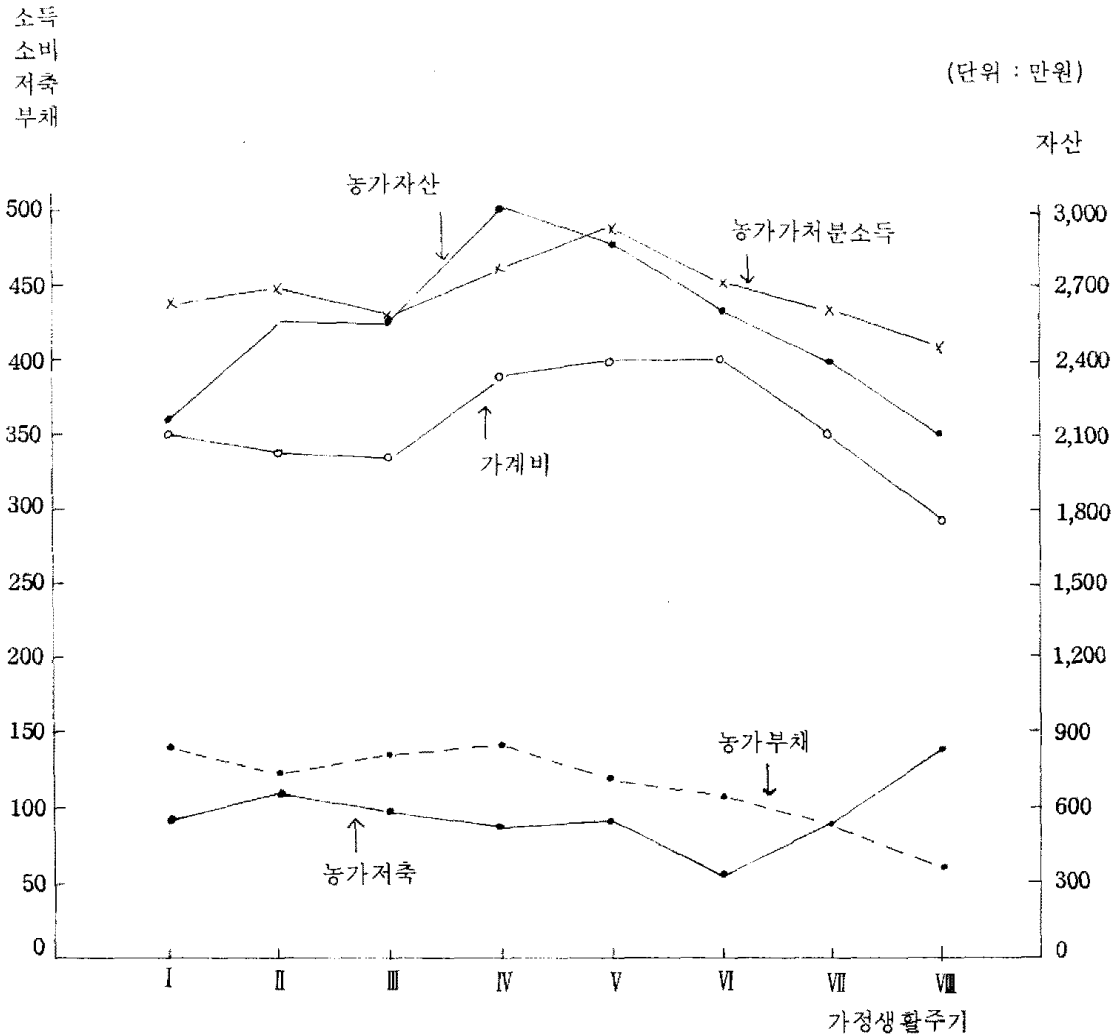


그림 1. 농가의 생활주기단계별 농가경제현황.

결과를 종합해서 농가의 가정생활주기단계별 가계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I단계 : 가정형성기로 가구주연령 27세이하의 단계로써 가구원수에 비해 소득은 비교적 높으나 소비가 커 저축율은 II, III단계보다 낮으며 자산 또한 가정해체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작다. 이 시기는 앞으로 가족수의 증가에 대비하여 가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II단계 : 자녀출산기로 가구주연령 28~33세의 시기이다. 숲 단계에 비해 소득은 증가하나 가계

비지출은 오히려 감소하므로써 저축가능성이 높고 실제 저축액도 VII단계 다음으로 많다. 자산 또한 前단계의 저축으로 인해 증가하므로써 지출에 대비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단계이다.

III단계 : 자녀의 초등교육기로 가구주연령 34~40세의 단계이다. 주거비지출이 숲단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피복비 음식물비 또한 증가한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이 비교적 낮은 단계로서 소비에 비해 소득의 감소폭이 커서 낮은 저축율을 나타내며 저축액도 감소한다. 이단계는

(단위 : 만원)
가계비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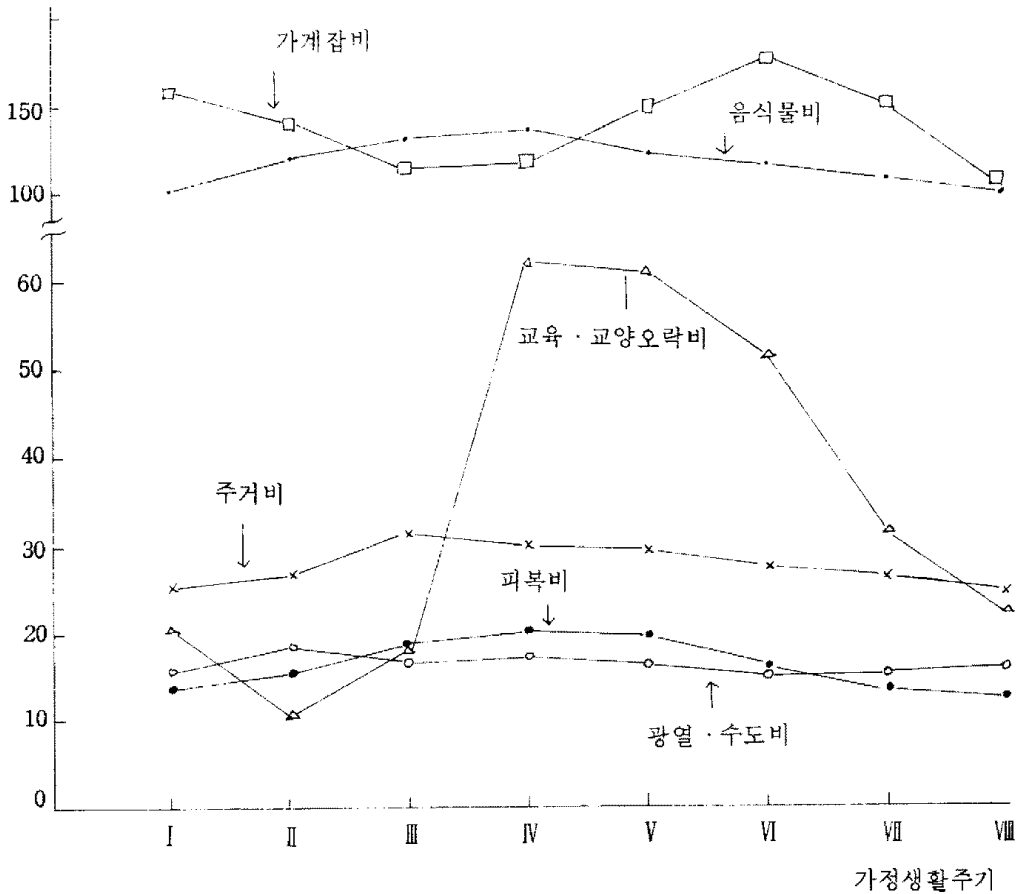


그림 2. 농가의 생활주기단계에 따른 비목별 소비지출의 변화.

소득, 자산, 저축 모두 감소하고 부채만이 증가하므로써 비교적 어려운 단계이다.

IV단계 : 자녀의 중·고등교육기로 가구주연령 41~46세의 가계비지출이 급증하는 단계이다. 자녀의 진학으로 교육비가 급격히 상승하며 피복비, 교통비도 전단계중 가장 높은 구성비를 나타낸다. 소득증가폭에 비해 가계비지출의 증가폭이 크므로써 낮은 저축율을 보인다. 또하나의 특징은 I, II, III단계에서의 저축으로 인한 재산의 축적과 주택마련에 의한 고정자산의 증대로 전생활주기 단계중 가장 많은 자산보유단계이다. 그러나 부채도 가장 많으며 이는 자산 보유 형태가 고정자산이나 유동자산으로 현금대체가 신속하지 못하

기 때문이다.

V단계 : 자녀의 대학교육기 및 직업적응기로 가구주연령 47~52세의 단계이다. 가구주 뿐 아니라 성장한 자녀가 취업함으로써 소득이 증가되며 전단계중 가장 많은 소득을 얻는 시기이다. 가계비 또한 교육비와 잡비등으로 인해 지출액이 많으나 평균소비율은 전 단계에 비해 낮아 다음기에 대비한 저축을 늘릴 수 있다.

VI단계 : 자녀독립기로 가구주연령 53~61세의 가구원 1인당 소비지출액이 가장 많은 단계이다. 또한 음식물비, 주거비, 피복비, 교육·교양오락비, 가계잡비등 거의 전 비목의 소비액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이와같이 소비는 증가하는데 비

해 소득은 前 단계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며 결혼 비용의 총량으로 자산 또한 급격히 감소하며 저축도 前 단계에서 최저수준에 이르게 되는 경제적인 압박이 큰 단계이다.

VII단계 : 재적응기로 자녀가 결혼한 후 노부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야 할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음식물비와 가계잡비에 대한 비중이 다른 단계에 비해 높게 나타나나 前 단계에 비해 전체 소비지출액은 줄어들며 소득 또한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소득 감소폭에 비해 소비지출의 감소폭이 큼으로써 저축율이 다시 증가 가처분소득의 19.5%를 저축하고 있다. 자산은 VI단계의 지출 증대로 인한 자산의 처분과 저축 감소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VIII단계 : 가정해체기로 거의 전소비지출 비목의 지출액이 최저에 이르는 단계로 소득 또한 최저가 된다. 그러나 평균소비율이 현저히 낮아짐으로써 前 단계중 저축액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그러나 자산은 오히려 감소하여 자산보유액은 가장 작은 단계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농가의 합리적인 가계관리방안을 제시해 보면 I 단계에서는 관혼상제비나 교제비등을 줄여 II 단계와 같이 저축율을 높임으로써 앞으로의 소비증대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이며 각 생활주기별 목표 즉 자녀의 출산, 육아, 형제의 결혼 등으로 인한 지출에 대비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III, IV, V 단계에서는 자녀의 성장과 가족수의 증가로 인한 교육비, 주거비, 피복비지출에 대한 장기계획, 그리고 V, VI 단계는 자녀의 결혼 VII, VIII 단계는 자녀의 결혼으로 인해 변화한 가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관리와 노후에 대비한 저축등의 재정관리에 대한 계획이 요구된다.

농가경제는 각 생활주기 단계마다 서로 다른 소득, 소비지출, 저축, 자산, 부채구조를 지님으로써 생활주기에 따라 각 단계에서의 가계상황에 적합한 생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농가경제변수가 생활주기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을

입증함으로써 가정생활주기는 농가경제분석의 유력한 설명변수임이 확인되었고 본 분석에서 사용한 농가생활주기의 설정은 현시점에서 매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가족수와 가족구성을 함께 고려한 농가생활주기의 설정은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강봉순·문팔룡 : 농가경제분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중간보고서 제 7506 권, 1975
- 2) 강희경·최인현·윤종주 : 한국의 가족형태와 가족생활주기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보건원, 1982
- 3) 권희완 : 가족생활주기와 역할변천, 최신덕교수회잡기넘는문집, 1982
- 4) 김광석 : 한국가계의 저축행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총서 4, 1975
- 5) 김영모 : 한국농촌가족의 생활주기측정, 농촌사회연구, 숭실대학교, 1965
- 6) 김영숙 : 장기생활설계를 위한 가계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83, 1(2)
- 7) 박혜경 : 소비자경제학, 서울 : 박영사, 1984
- 8) 서병숙·임혜경 :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변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84, 2(1)
- 9) 옥선화 : 한국가정의 생활주기에 관한 고찰, 생활과학연구논집, 성심여자대학, 1980, 1(1)
- 10) 유영주 : 한국도시가족의 가정생활주기 모형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84, 2(1)
- 11) 이정환 : 한국농가의 자산수요방정식 추계—동태적 농가경제모형에의 접근—, 농업경제연구, 1982, 23
- 12) 저축추진중앙위원회 : 한국인의 장기생활설계연구, 열매문고 11, 1980
- 13) 저축추진중앙위원회 : 도시근로자가계의 장기생활설계, 열매문고 12, 1981
- 14) 조대경·박재윤 : 한국인의 저축행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보고서 I, 1977
- 15) 조희금 :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행태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84, 2(1)
- 16) 최연생 : 우리나라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비지출분석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983
- 17) 최은숙 : 장기가계계획모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6
- 18) 최은숙 : 사회경제적 변수 및 가족생활주기가 가계 지출 유형에 미치는 효과분석, 농학연구, 서울대학교, 1983, 8(2)
- 19) 최재석 : 한국가족의 주기, 김두헌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64
- 20) 홍영표 : 소비자 물가지수와 Life Cycle 과의 관련에 관한 이론적 연구, 인구문제논집, 1969, 8
- 21) 江見康一 · 伊藤秋子 : テキストブック家庭経済學, 東京 : 有斐閣, 1982
- 22) 渡邊珪子 : 農家家計費の特徴と家計費設計, 農村生活研究, 1981, 25(1)
- 23) 森岡清美 : 家族週期論, 東京 : 培風館, 1973
- 24) 小林茂 : 農民家族週期の經濟學的研究, 社會科學ツァーナル, 1961(3), 2
- 25) 伊藤秋子 : ファミリー・サイクルと對應おち食料費, 人文科學記要, 茶の水女子大學, 1962, 18
- 26) 伊藤秋子 : 家庭の經濟生活と消費構造に關する研究, 日本家庭學雜誌, 1980, 31(1)
- 27) 坂本武人 : 生活設計と家計簿診斷, 京都 : ミネルヴァ 書房, 1984
- 28) Ando A and F Modigliani :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1963 (3)
- 29) Andrews FM and SB Withey :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New York: Plenum Press, 1976
- 30) Burk MC : About family economic behavior, *J of Home Economics*, 1966, 58(6)
- 31) Coughenour CM : Functional aspects of food consumption activity and family life cycle stag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2, 34 (4)
- 32) Cowlest LM : Changes in family personnel, occupational status, and housing occurring over the farm family's life cycle, *Rural Sociology*, 1953, Vol 18
- 33) Deacon RE and FM Firebaugh : *Family resource management*, Allyn and Bacon Inc, 1981
- 34) Duvall EM :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5th ed, Lippincott, 1977
- 35) Fisher JA : Family life cycle analysis in research on consumer behavior, *Consumer Behavior*, 1955, Vol 2
- 36) Fitzsimmons C and F Williams : *The family economy*, Michigan: Edwards Brothers, Inc, 1974
- 37) Glick PC : The family cycle, *American Economic Review*, 1947, 7(2)
- 38) _____ : Updating the life cycle of the family,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7(2)
- 39) Glick PC and R Parke : New approaches in studying the life cycle of the family, *Demography*, 1965, 2
- 40) Lansing JB and Kish : Family life cycle as an indepent variabl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57, 22(5)
- 41) Lansing JB and JN Morgan : Consumer finances over the life cycle, *Consumer Behavior*, 1955, 2
- 42) Loomis CP and AB Beegle : Life cycles of Farm, rural-nonfarm, and urban families in the U.S. as derived from census materials, *Rural Sociology*, 1948, 13
- 43) Nock LS : The family life cycle: empirical or conceptual tool?,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9(2)
- 44) Oppenheim I : *Management of the modern home*. 2th ed, Macmillan, 1976
- 45) Spanier GB and W Sauer : An empirical evaluation of the family life cycl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9(2)

